

#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과 우울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영옥<sup>1</sup>, 성경미<sup>2\*</sup>

<sup>1</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박사수료, <sup>2</sup>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건강과학연구원

## The Effect of Parents, Peer, Teacher Attachment & Depression on Self-Concept in Adolescents

Young-Ok Lee<sup>1</sup>, Kyung-Mi Sung<sup>2\*</sup>

<sup>1</sup>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부모, 또래 및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연구로 G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모두 137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대상자의 성적이 높을수록 부모애착( $F=13.878, p<.001$ ), 또래애착( $F=7.431, p=.001$ ), 교사애착( $F=7.425, p=.001$ ), 우울( $F=13.241, p<.001$ ) 및 자아개념( $F=13.136, p<.001$ )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아개념은 부모, 또래 및 교사애착과 양의 상관관계,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이었으며 설명력은 61%로 높았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을 중재함으로써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자아개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제어 : 청소년, 애착, 부모, 또래, 교사, 우울, 자아개념

Abstract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parents, peer,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ion in adolescents. A surve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2,3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 located in 137 subjects. Data were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2.0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s attachment( $F=13.878, p<.001$ ), peer attachment( $F=7.431, p<.001$ ), teacher attachment( $F=7.425, p<.001$ ), depression( $F=13.241, p<.001$ ), and self-conception( $F=13.136, p<.001$ ) according to participants' school grades. In the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self-conception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 attachment in aspects of positive, and depression in aspect of negative. Participants' depression explained 61% of variance in self-conception. Findings from this study should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o promote participants' self-concept through their depression as a major problem in adolescent mental health.

Key Words : Adolescent, Attachment, Parents, Peer, Teacher, Depression, Self-concept

\*Corresponding Author : Kyung-Mi Sung(sung@gnu.ac.kr)

Received August 3,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Revised August 28,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적·정서적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1], 이 시기는 자신의 신체적 변화와 심적인 동요 및 사회적 역할의 혼돈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여, 올바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업이다[2].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관점의 총합으로 자신에 대해서 갖는 지각, 생각 및 태도의 독특한 형태로[3],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기의 정서발달에 안정감을 주며 미래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4]. 하지만 자아개념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며[5], 갈등과 스트레스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여러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적응을 겪게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게 된다[6]. 자아개념은 청소년기에 자신의 경험 및 학습관, 가족, 학교 환경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어 인간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성격의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7]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과 또래집단, 학교는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계로[8], 이러한 체계는 부모와의 관계, 또래 집단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로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이는 애착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9]. 애착(attachment)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 관계를 의미하고[10] 생애 초기 주양육자와 맺는 애착관계는 아동·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또래집단 및 교사와의 애착관계로 확장된다[9]. 청소년기의 애착은 아동기 애착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청소년기에도 부모애착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며 청소년기로 성장해 가면서 부모에 갖는 안정감의 느낌은 부모의 여부에 의한 실제 영향력은 줄어들면서 언젠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자기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변환된다고 하였다[11].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갖게 되고 타인을 신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12]. 청소년기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또래 애착을 주요 대상으로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또래애착은 또래사이의 지속적인 친밀한 유대관계를 의미

한다[13]. 또래관계는 흥미, 애정, 관심, 정보 등을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하고 이원적인 애착관계로서 아동들이 사회, 정서적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특성을 습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11]. 이는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애착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여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14]. 교사에착 관계는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 위에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Howes와 Hamilton[15]은 부모애착과는 별개로 독립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교사에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학생의 다양한 인지적·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6].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애착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애착[1,17], 또래애착[1,7], 및 교사에착[9,16]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애착은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하나, 부모 또래, 교사에착을 통합적으로 한 청소년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부모, 또래, 교사에착에 대한 포괄적 수준에서 자아개념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장애가 우울이다[18]. 청소년의 우울은 자신에 대해 낮은 가치감을 느끼며, 인지적 장애가 심하여,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19].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은 사회적 유능감이나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학업문제, 교우관계 등에 부적응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20]. Sung[21]의 연구에서도 우울 정도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였으며, Kang[22] 역시 청소년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울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자아개념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적 요인, 가정환경, 학교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어 간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 또래, 교사에 대한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변인이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 또래, 교사에 대한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G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수집 전에 해당 학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소요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자료수집 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동의절차를 받았으며 대상자에게 역시 연구목적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대상자에게는 설문조사 자료가 연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응답을 강요하지 않고 설문 응답 중간에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설문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1]를 적용하고, 예측요인은 4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29명이었다. 설문조사는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42명에게 배포하였으며, 최종 불성실하게 작성된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3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1) 부모 애착

부모 애착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13]이 개발한 부모 또래 애착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에서 부모애착 정도를 Yoo, Park & Hwang[23]이 한국 초·중·고등학생에게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타당화하여 개발한 한국형 부모애착 정도(IPA)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IPA는 부와 모를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PA는 총 25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신뢰'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Yoo, Park & Hwang[23]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 2) 또래 애착

또래 애착 측정도구는 Armsden과 Greenberg [13]가 10-20세를 대상으로 개발한 부모 또래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에서 수정한 IPPA-R을 Ok[24]이 번안하여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래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IPPA-R은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8문항, 소외감 7문항이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Ok[2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이며 본 연구에서는 0.96이었다.

#### 3) 교사 애착

교사 애착 측정도구는 Kim & Kim[16]가 개발한 학생-교사애착관계 도구(Student 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접근 가능성' 3문항, '민감성' 4문항, '신뢰성' 4문항, '수용성'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긍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Kim & Kim[1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4) 우울

Kovacs[25]가 구성한 아동·청소년용 우울척도(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를 Han[26]이 번역한 것을 사용할 것이다. 아동용 우울 척도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8세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는 자기 보고형 설문도구로, 총 23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6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5) 자아개념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Sung[21]이 개발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가평가용 자아개념 척도로 총 80문항으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학업적 자아개념으로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ung[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7이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값과 평균평점, 표준편차 및 최대값과 최소값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은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분석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대상자의 부모, 또래,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변수의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 또래, 교사와의 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의 차이 비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대상자는 총 137명으로 여학생 87명(63.5%) 남학생 50명(36.5%)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년은 2학년 78명(56.9%), 3학년 59명(43.1%)이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학생은 116명(84.7%)이었고,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한 부모 혹은 조부모나 친척 등과 살고있는 학생은 21명(15.3%)이었다. 성적은 '상' 22명(16.1%), '중' 78명(56.9%), '하' 37명(27%)이었으며, 가정경제 수준은 '상' 14명(10.2%), '중' 119명(86.9%), '하' 4명(2.9%)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38명(27.7%), 대졸 이상 99명(72.3%) 이었고,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 29명(21.2%), 대졸이상 108명(7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애착 정도는 성적( $F=13.878,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분석결과, 성적 '하'보다 '상'이 부모애착 정도가 높았고, 성적 '중' 이 '하' 보다 부모애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또래애착 정도는 성별( $t=-3.681, p<.001$ )과 성적( $F=7.43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 '하'보다 '상'이 또래애착 정도가 높았다. 교사에착 역시 성적( $F=7.425,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상'인 경우 교사에착 정도가 높았다. 우울은 성적( $F=13.241,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후 분석결과, 성적 '상' 보다 '하'일 때 우울 정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개념도 성적( $F=13.136,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 분석결과, 성적이 '하'인 학생보다 '상'인 경우 자아개념 정도가 높았다.

## 3.2 대상자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3점 만점에 평균평점  $2.25 \pm 0.32$  점(합계평균 240점 만점에  $179.66 \pm 25.43$ 점), 부모애착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40 \pm 0.42$ 점, 또래애착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3.02 \pm 0.36$ 점, 교사에착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85 \pm 0.49$ 점, 그리고 우울은 4점 만점에 평균평점  $2.32 \pm 0.65$ 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 3.3 대상자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관계

연구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먼저 대상자의 자아개념과

Table 1. Differences of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37)

Variables	Category	n (%)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Self-concept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School grade	2	78(36.5)	3.20±.41	0.936 (.351)	3.08±.19	-0.895 (.373)	2.78±.49	0.490 (.625)	1.86±.50	0.424 (.672)	180.59±26.01	-0.488 (.626)
	3	59(43.1)	3.20±.43		3.01±.38		2.82±.48		1.89±.44		178.44±24.82	
Gender	Male	50(36.5)	3.24±.41	0.479 (.635)	2.87±.33	-3.681 (<.001)	2.83±.48	0.76 (.565)	1.83±.46	-0.799 (.426)	179.47±25.51	0.117 (.907)
	Female	87(63.5)	3.21±.43		3.14±.46		2.788±.48		1.90±.48		180.00±25.56	
Academic achievement	High <sup>a</sup>	22(16.1)	3.56±.34	13.878 (<.001) a>c, a>b	3.25±.38	7.431 (.001) a>c	3.09±.54	7.425 (.001) a>c	1.62±.45	13.241 (<.001) a>c, b>c	194.81±20.48	13.136 (<.001) a>c, b>c
	Medium <sup>b</sup>	78(56.9)	3.23±.39		3.09±.38		2.80±.43		1.80±.41		182.65±22.88	
	Low <sup>c</sup>	37(27)	3.00±.42		2.84±.34		2.62±.47		2.18±.47		164.35±26.07	
Family living together	Both parents	116(84.7)	3.23±.42	-0.494 (.622)	3.07±.45	-1.477 (.142)	2.80±.50	0.169 (.866)	1.84±.47	1.788 (-.076)	180.29±24.55	-0.679 (.498)
	Single parent/ Others	21(15.3)	3.18±.47		2.92±.33		2.81±.40		2.05±.50		176.19±30.30	
Economic Status	High <sup>a</sup>	14(10.2)	3.37±.41	4.041 (.120)	3.15±.33	2.148 (.121)	2.80±.54	0.010 (.990)	1.89±.43	1.012 (.366)	184.36±29.19	1.021 (.363)
	Medium <sup>b</sup>	119(86.9)	3.22±.42		3.05±.43		2.80±.48		1.86±.48		179.65±24.87	
	Low <sup>c</sup>	4(2.9)	2.71±.24		2.64±.56		2.76±.53		2.21±.44		163.75±29.44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38(27.7)	3.18±.41	-0.875 (.383)	3.06±.37	-0.419 (.696)	2.80±.50	-0.349 (.727)	1.85±.50	1.141 (.256)	180.81±26.26	-0.896 (.398)
	≥College	99(72.3)	3.25±.43		3.03±.57		2.77±.46		1.95±.41		176.68±23.24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29(21.2)	3.13±.44	-1.459 (.147)	3.08±.47	-1.793 (.075)	2.80±.47	-0.234 (.813)	1.88±.49	-0.094 (.925)	179.60±25.61	0.055 (.956)
	≥College	108(78.8)	3.25±.42		2.92±.37		2.78±.54		1.87±.44		179.87±25.20	

Table 2. Level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 of the Participants (N=137)

Variables	Total Mean±SD	Min-Max	Average M±SD	Min-Max
Parent Attachment	80.66±10.45	50-100	3.40±0.42	2.08-4.00
Peer Attachment	75.38±8.99	48-94	3.02±0.36	1.92-3.76
Teacher Attachment	39.18±6.78	15-56	2.85±0.49	1.07-4.00
Depression	46.03±10.78	23-83	2.32±0.65	1.00-3.61
Self-Concept	179.66±25.34	92.00-232.00	2.25±0.32	1.15-2.9

Table 3. Relationships Parents Attachment, Peer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Depression and Self-Concept of the Subjects (N=137)

Variables	Parent Attachment r (p)	Peer Attachment r (p)	Teacher Attachment r (p)	Depression r (p)	Self-Concept r (p)
Parent Attachment	1				
Peer Attachment	.359(p<.001)	1			
Teacher Attachment	.525(p<.001)	.303(p<.001)	1		
Depression	-.699(p<.001)	-.395(p<.001)	-.519(p<.001)	1	
Self-concept	.597(p<.001)	.398(p<.001)	.487(p<.001)	-.784(p<.001)	1

Table 4.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on Factors Affecting Self-Concept among Adolescents (N=137)

Variable	B	SE	β	t	p	Adj R2	F	p
(Constance)						.612	215.71	<.001
Depression	-42.00	2.860	-.784	-14.687	.000			

부모애착은  $r=.597(p<.001)$ , 자아개념과 또래애착은  $r=.398(p<.001)$ , 자아개념과 교사에착은  $r=.487(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아개념과 우울은  $r=-.784(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즉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부모애착, 또래애착, 그리고 교사에착과는 높은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은 아주 높은 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3.4 대상자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본 연구의 자료가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진단하기 위하여 회귀모형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등분산 검증을 위해 잔차 도표(plot)에서 등분산성이 확인되었고,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통계를 실시한 결과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차 항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P-P 도표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를 보여 정규성이 검증되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지수(VIF)가 1.000-1.239 사이에 있어 모두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도 없었다. 다중회귀 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성적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선정된 부모, 또래, 교사에착, 우울을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215.71, p<.001$ ), 설명력은 61.2%였고, 청소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beta=-.784, p<.001$ )로 나타났다.

##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통합적 관점으로 조사하기 위해 부모, 또래 및 교사에착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들과 우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애착 정도는 4점 만점에 3.22점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27]의 연구에서 본 연구와 다른 도구로 측정한 부모애착 점수는 5점 만점에

3.34점으로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인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반면 Kim[27]의 연구 대상자는 후기 청소년으로 부모로부터 보다 정신·심리적으로 독립된 시기로 인해 나타난 차이일 수 있다. 또한 여중생의 부모애착을 연구한 Ahn, Hyun, Choi, Park & Lee[28]의 연구에서 모애착은 70.50점, 부애착은 68.99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부모애착 점수가  $80.66 \pm 10.45$ 로 더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부모님 한분 또는 조부모와 사는 학생보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학생이 많고, 지역 특성상 중상위층의 아파트 내에 있는 학교인 점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 정도는 평균 3.02점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Choi[29]의 연구에서 2.87점이었던 것보다 다소 높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1]의 3.62점과는 유사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아동기에 비해 사회적 관계가 넓어지고 학교에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며 동료의 식이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28]. 또래애착은 성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Kim과 Choi[29]의 연구에서 여자아동이 더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남자아동은 혼자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자아동은 동성 친구들과 집단을 이루고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29]. 이러한 행동들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또래 간의 영향을 더 많이 주고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에착 정도는 평균 2.85점으로 애착점수 중 가장 낮았으며,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Kim과 Choi [29]의 연구에서도 교사에착은 2.87점으로 다른 애착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는 대상자가 부모나 또래와는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나 교사는 학교의 학습이나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정서적 요구는 표현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 중 성적은 교사에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Yoon & Kim[30]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업성적의 저하로 인해 학생이 고립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즉,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교사에게 인정을 받게 되며 친밀감을 표현할 기회가 생기고 있어 애착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도 교사에착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일선의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우울 점수는 평균 2.32점(46.03점)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 Kim[31]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은 40.57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정도는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Kim[31]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안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그 외 선행연구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 교육과 과도한 경쟁이 성적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186점 이상 매우 긍정적인 자아개념, 163점 이상 185점이하 긍정적인 자아개념, 153점이상 162점이하 보통, 139점 이상 152점 이하 부정적 자아개념, 138점 이하 매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평균 179.66점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32]의 연구에서도 자아개념 점수는 175.6점으로 비슷한 정도였고, Sung[21]의 연구에서 일반 중·고등학생의 자아개념이 184.3점이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아동 후기에서 초기 청소년기는 정체감의 혼돈의 시기로 아직 자아개념이 불완전하며, 후기 청소년기로 갈수록 정체감 형성과 함께 자아개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가기 때문이다[33].

본 연구에서는 부모, 또래, 교사애착, 우울 및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부모애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597(p<.001)$ , 자아개념과 또래애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398(p<.001)$ , 자아개념과 교사애착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487(p<.001)$ , 자아개념과 우울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r=-.784(p<.001)$ 로 나타났다(Table3). 그러므로 자아개념과 부모, 또래, 교사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모, 또래, 교사애착이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대상자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을 연구한 Park & Lee[1], Shin & Doh[7], Lee & Oh[34]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과 자아개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개념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지지적이고 애정적이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자기개념 형성을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래애착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Lee & Oh[34]의 연구에서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집단과 잘 어울리고 관계가 좋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애착과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Yoon[3]의 연구에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규제, 통제, 억압 등의 태도는 학생의 자아개념을 저하시키고, 수용, 이해, 허용을 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보고하였고, Kim[35]의 연구에서 교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의 집단이 자아개념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우울과 자아개념 간의 관계는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결과가 나타났으며, 과체중아동과 정상아동의 우울과 자아개념을 연구한 Sung, Ham & Lee[36], Sung[21]의 연구에서 우울도와 자아개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교 성적에 따른 자아개념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교 성적이 하일 때보다 상일 때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Lee[1]의 연구에서 학교 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한 연구 결과 나타낸 것과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에 대한 효능감 및 성취감을 느껴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업적 성취를 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다양한 문제행동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학업적 적응은 고려되어야 할 특성으로 사료된다. 한국은 대학 입시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교육적 여건으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학업성적이 매우 중요하며 그 학생의 모든 평가기준이 학업성적이 되어버리는 경향으로 자아개념과 학업성적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 또래, 교사애착과 개인적 요인으로 우울 변인을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한 Park & Lee[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우울이 감소되고 부모, 또래, 교사 애착이 잘 형성되면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울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에 따라 청소년 우울 예방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또래 및 교사에착 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애착을 부모, 또래, 교사에착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개념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자아개념에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를 일개 지역의 1개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비확률 편의표출 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측정하여 변수의 과대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또래, 교사에착, 우울 및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결과 대상자의 자아개념은 긍정적 자아개념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모, 또래, 교사에착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대상자의 자아개념에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숙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정신건강의 문제인 우울을 증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우울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청소년기의 특징적인 변수 등을 포함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 자아개념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이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 발달 증재 프로그램 개발시 우울을 증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아개념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향후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을 증재하여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학

교차원체계적으로 돕는 것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증재 대상 청소년을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자아개념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길 바란다.

## REFERENCES

- [1] T. H. Park & K. H. Lee(2014). The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Depression on the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3), 353-361.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3.353>
- [2] E. H. Erickson.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3] B. A. Braken. (1992). Examiner's manual for the multidimensional self concept scale. Austin, TX:Pro-Ed.
- [4] M. Y. Kim. (2010). *The development of child*. Seoul: Jungmunsa.
- [5] I. S. Song. (2013). *Self-concept*, Seoul: Hakjisa.
- [6] B. M. Gfelter & H. D. Armstrong. (2012). Ego development, ego strengths, and ethnic identity among first natio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Adolescent*, 22(2), 225-234.
- [7] N. N. Shin. & H. S. Doh. (2000).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3), 99-113.
- [8] I. S. Song. (1989), The developmental and differentiated changes in dimensionality self-concept across ag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1), 85-103.
- [9] J. K. Lee. (2012). A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teacher attachment on delinquen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51-73.
- [10] J. Bowlby. (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 [11] G. C. Armsden & M. T. Greenberg.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12] S. H. Oh. (1998). The relation among adolescent's attachment self esteem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 [13] M. D. Ainsworth.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14] Y. Y. Chae. (2006). Correl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15] C. Howes & C. E. Hamilton. (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s and i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15-32.
- [16] J. B. Kim & N. H. Kim. (2009). Validation of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STARS) as a basis for evaluating teachers' educational competenci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3(4), 12, 697-714.
- [17] E. J. Oh & K. M. Sung. (2018). A Structural Model of Self-Concept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s Mode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24(2), 171-181.  
DOI:http://dx.doi.org/10.14370/jewnr.2018.24.2.171
- [18] I. S. Choi. (2012).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 on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ccording to sex: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 136-160.
- [19] E. G. Lee & S. Y. Park. (2011).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dolescents' depressive experiences, depression, and self-esteem and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 statu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4), 101-123.
- [20] C. A., Essau, J. Conradt, & F. Petremann. (2000). Frequency, comorbidity and psychosocial impairment of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s Reseach*, 15, 470-481.
- [21] K. M. Sung. (2012). Development of a self-evaluation scale to measure self-concept for children and adolescent. *Journal of Korean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1(4), 292-302.  
DOI: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4.292
- [22] H. K. Kang. (2017).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7(9), 353-362.  
DOI:http://dx.doi.org/10.5392/JKCA.2017.17.09.353
- [23] S. K. Yoo, S. L. Park & M. H. Hwang. (2010). Validation of Korean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9(10), 21-39.
- [24] J. Ok.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25] M. Kovacs. (1981). Rating scales to assess depression in school-aged children. *Acta Paedopsychiat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5), 305-315.
- [26] E. G. Han. (1993). Children's and adolescents' depression, attributional styl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3), 147-157.
- [27] E. J. Kim. (2015). The Effect of Parent's Forced Academic Comparison on Adolescent Problems: Focusing on Academic Inferiority, Depression and Smart Phone Addic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17(1), 357-381.
- [28] H. Y. Ahn, H. J. Hyun, J. M. Choi, S. M. Park & J. H. Lee. (2014). Effects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on Depression among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 School Health*, 27(3), 140-147.
- [29] B. Kim & Y. S. Choi. (2012).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attachment types of parents, teachers and pee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1-13.  
DOI:http://dx.doi.org/10.6115/khea.2012.50.1.001
- [30] E. J. Yoon & H. S. Kim.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life-style, mental heal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Adolescent Welfare*, 7, 105-120.
- [31] M. H. Kim. (2012). Comparison of the Effect of Maum Meditation Program on the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of the Children and the Juvenil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338-348.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04.338
- [32] K. M. Sung. (2015). Effect of program to enhance ego-development on general mental health, self-concept, and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Psychiatri mental Health Nursing*, 24(2), 83-81.  
DOI:http://dx.doi.org/10.12934/jkpmhn.2015.24.2.73
- [33] K. M. Sung, M. S., Hyun, H. S. Shin, W. J. Hwang, J. H. Jin & H. R. Park.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theory & practice. Seoul: Koomonsa; 2017.
- [34] S. R. Lee & Y. J. Oh. (2008).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and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self-concept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6(9), 113-123.
- [35] E. H. Kim. (1992). The types of teacher's leadership perceived by students and their self-concep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36] K. M. Sung, O. K. Ham & H. J. Lee. (2012). A Comparative Study on Physical Self-concept, Academic Self-concept and Depression of Obese and Over-weight and Normal Weight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24(2), 192-203.

이 영 옥(Young-Ok Lee)

[정회원]



- 2011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청소년, 자아개념
- E-Mail : 13293@naver.com

성 경 미(Sung, Kyung Mi)

[정회원]



- 1992년 9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08년 9월 ~ 현재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정신건강, 조현병, 양

육스트레스

- E-Mail : sung@gnu.ac.kr